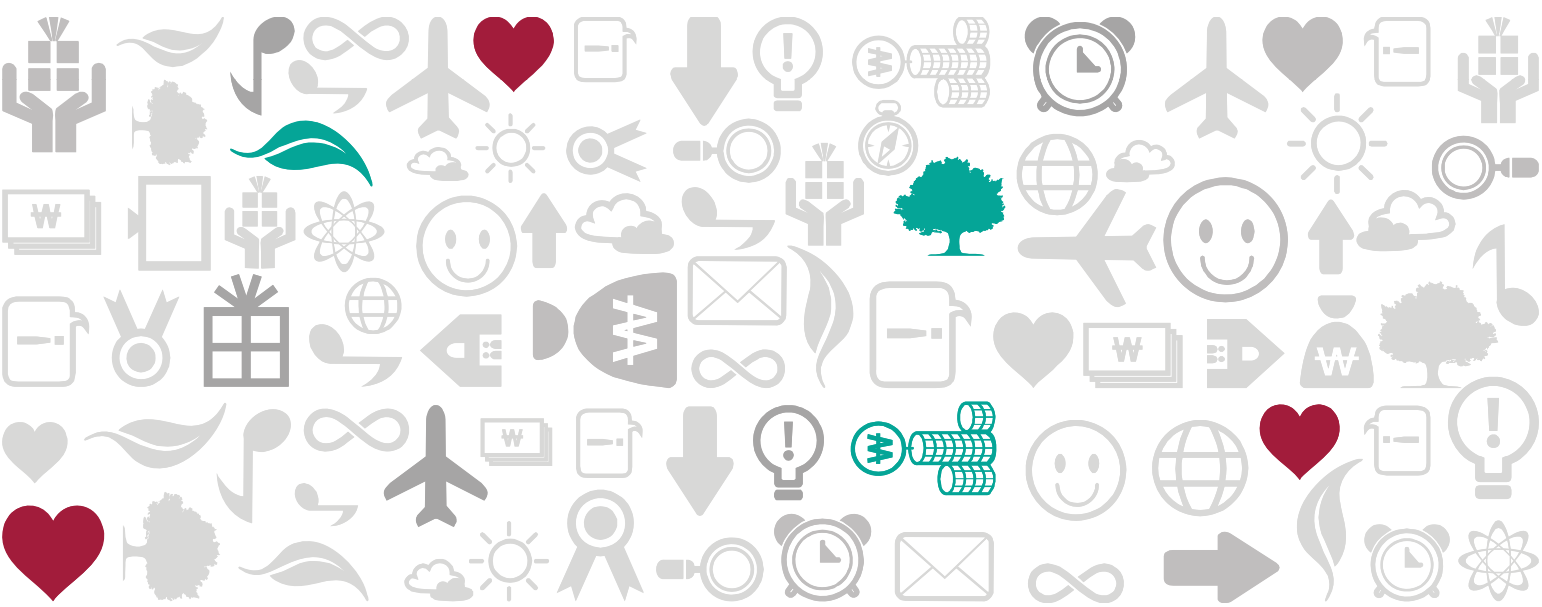
하나금융그룹

08
2013년 No.05

은퇴설계를 위한

하나 행복가이드

고령화에 따른 노후 의료비 증가와 대응방향
저성장 · 저금리 시대의 은퇴자산 운용방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그룹 행복디자인 대표전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02) 2002 – 1147
	퇴직연금부	(02) 3788 – 5454
외환은행	퇴직연금실	(02) 729 – 0806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02) 3771 – 7173
하나생명	행복금융프라자	(02) 6325 – 3014

Contents

이슈 포커스	고령화에 따른 노후 의료비 증가와 대응방향 저성장 · 저금리 시대의 은퇴자산 운용방안	01
노후 재무설계	의사 J씨, 개인연금 확대 및 주택연금 활용으로 충분한 노후 준비 가능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변동성에 대비한 현금성자산 보유 비중 유지 8월 주식시장은 수급개선에 따른 점진적 상승 예상	09
국내외 단신	여성 노동 증가에 따른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감소 지난 1년간 연금 수령 고령층 46.9% 수준에 불과 국민연금 보험료 상향 등을 통한 세대간 수급 형평성 고려 필요	14
상품브리프	시니어 계층에 특화된 은퇴자 전용 카드	18
행복한 노후디자인	무더위 여름철 건강관리 요령	21
하나 뉴스	하나은행, 안심이체 서비스 무료 시행 등	23
연금 통계		24

고령화에 따른 노후 의료비 증가와 대응방향

연구위원 김 대 익
(kimdi@hanafn.com)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노후 의료비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의료비의 급증은 기대여명의 증가, 노인성질환의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으로 커버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정책당국은 사회안전망의 구축 및 강화차원에서 공적보험을 보다 강화하고, 민영상품에는 세제혜택 등의 부여를 통하여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의료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각 개인도 노후 연금과 마찬가지로 노후 의료비 준비를 가급적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 "

고령화의 진행과 더불어 노후 의료비 조달 중요 이슈

국내 인구의 고령화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된 일본 보다도 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이미 고령인구의 비율이 7%을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80세이상 초고령층 인구는 평균 5%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노후 의료비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고령자의 의료비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민영보험인 실손의료보험 등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노후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65세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 보험제도에 의하여 지원이 되고 있지만 충분한 보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노후 의료비 부담이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령화 및 노인성 질환 증가 등으로 65세 이상 의료비 급증 추세

국민건강보험에 의하면 65세이상 의료비는 2012년말 16.4조원으로 전체의료비의 34.4%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3.1조원대비 5.2배가 증가한 것이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16.3%의 높은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 평균도 65세 미만 평균의료비 증가율 6.2%보다 배가 높은 12.6%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의료비에서 65세이상 의료비가 점유하는 비중도 2001년 17.7%이던 것이 2012년말에는 34.4%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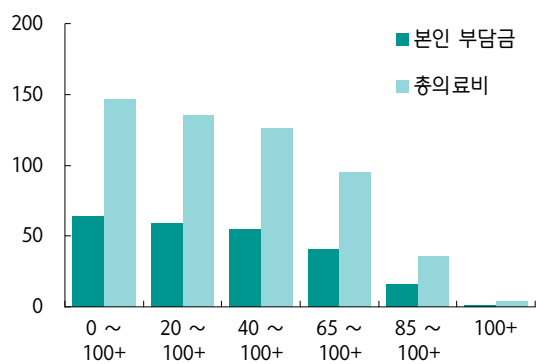
1인당 월간 이용의 경우도 내원일수 기준으로 2012년 65세 이상이 4.22일로 65세미만 1.27일에 비하여 3.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65세 이상의 보험급여 일수 또한 65세 미만대비 2007년에 4.2배이던 것이 2012년에는 4.6배로 확대되었다. 월평균 진료비도 2012년 기준 65세 이상이 256,321원으로 65세미만 59,251원보다 4.3배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한 1인당 의료비도 노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애 의료비의 경우 65세 이후에 전체의료비의 65.0%를 지출하고 있고, 85세이후에도 24.4%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부담금의 경우도 65세 이후에 4,080만원을 지출하며 64.1%를 지출하고 있어, 65세 이전 지출 2,280만원 대비 1.8배정도를 부담하며 노후에 집중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노후에 의료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우선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인구고령화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빠른 고령화의 진행은 장애여명률(장애여명/기대여명)도 같이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여명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65~69세의 경우 장애여명과 장애여명률은 각각 6.6년, 36.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후 장애여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75~79세에는 47.2%, 85세 이상에서는 56.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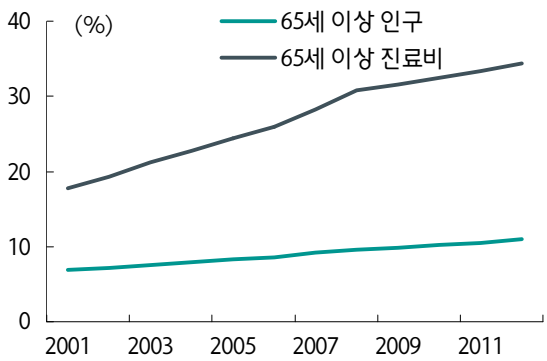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론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이다. 이들 65세이상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총 의료비 지출은 2002년 3,170억이던 것이 2010년에는 2.1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연평균 27%의 높은 증가율로 지출금액이 커진 것이다. 반면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비중은 20% 초반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성 질환별 총의료비는 뇌혈관질환, 치매, 파킨스 병의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총지료비는 치매, 파킨스병,

생존자 1인당 생애의료비



자료 : 조용운, "생애환자의료비 추정을 통한 노인의료비 분석", 보험금융연구, 2011.5

65세 이상 인구 및 진료비 비중 추이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연도별 건강보험 주요 통계

1) 변용찬외 3인,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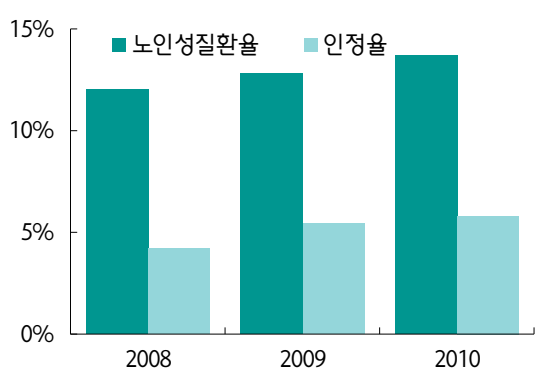
뇌혈관질환의 순으로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65세 이상 의료비는 인구고령화의 심화, 개인의 기대여명 증가와 장애여명률 상승에 다른 노인성 질환의 증가 등으로 개인 및 사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손실의료보험 등에도 불구 노인들에게 의료비는 여전히 큰 부담

현재 65세이상 노인들의 국민건강 보험 등 공적보험을 통한 의료비 본인 부담은 2012년말 현재 총의료비중 23.4%에 이르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경우도 65세 이상 노인들은 총의료비의 24%내외를 본인이 부담하는 등 노후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2008년 7월부터 노후건강보장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도 2010년기준 노인성 질환자 비율 13.7%에 비하여 급여대상자는 5.8%로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의 노인성질환자가 1차적인 신청대상이다. 그중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한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급여대상 수준의 등급을 받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가 된다. 급여대상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인정조사,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3등급으로 분류한다. 1등급은 전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된다. 2등급은 상당부분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로 요양인정점수가 75점이상 95점 미만인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3등급은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로 요양인정점수가 51점이상 75점미만인 경우이다. 그리고 급여는 재가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 수습자가 방문서비스를 받을때 발생하는 비용중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형태로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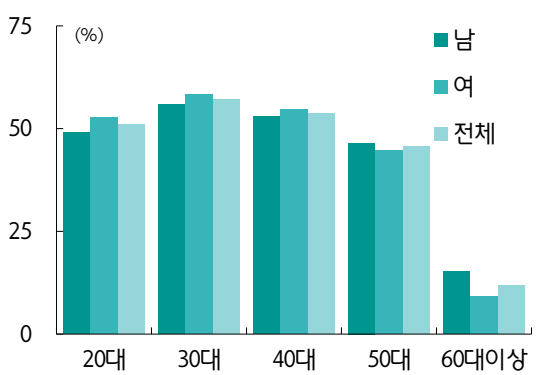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는 2002년 6.9%에서 2010년 13.7%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성질환자중 노인장기보험 인정자비율은 2010년 42.2%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65세이상 노인장기보험 신청자 중에서 인정자는 2012년 53.1%를 보이고 있고, 최근 5년 평균 54.3%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고령자 기준 노인장기보험인정자 비율도 2010년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이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연도별 건강보험 주요통계 및 보도자료(2012.5)

실손 의료보험 가입율



자료 : 보험개발원, "전 국민의 약 75%가 생명 또는 장기손해보험에 가입". 보도자료, 2011. 12

5.8%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우리사회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민영보험의 측면에서는 실손의료보험[2]이 노후 의료비 대비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기대수명 증가와 장수리스크의 증가에 따라 의료비의 부담이 커지면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2012년 3월말 현재 전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25.6백만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60세 이상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은 11.8%로 전연령대 평균 가입률 46.8%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특히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긴 여성의 가입률은 9.1%로 남성의 15.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적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민영보험에서도 노인들의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노인들에게 있어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심각한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안전망의 강화차원에서 세제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정책당국의 대응이 필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무엇보다 정책당국은 사회안전망의 구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인 의료비 관련 상품들에 세제혜택의 부여 등을 통하여 각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의료비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현재 연금저축에서 특별중도해지 사유중 하나인 의료비관련 중도인출 허용사항[3]에 대한 보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 IRA에서는 1년동안 본인부담금이 소득의 7.5%를 초과할 경우 인출시 세금을 면제해주고, 실직으로 인하여 의료보험료를 지불코저 하는 경우도 특별사유로 인정하여 인출시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의료저축구좌(Health Savings Account)을 도입하여 의료비용도로 사용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이 자발적으로 의료비를 준비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노인전용 실손보험 등의 도입시 세제혜택의 부여 등을 통하여 각 개인이 노후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배려가 요구된다.

금융기관의 측면에서는 우선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세제혜택 등 인프라적인 면과 각 노인들의 발생가능 질환에 따른 세분화된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각 노인별로 환경, 유전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각각 커버하고자하는 의료비의 범위와 깊이가 다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후 의료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노인들이 각각 자신에게 적절한 진료기관을 탐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외부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종합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상품의 개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개인들은 향후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노후 연금과 마찬가지로 노후 의료비에 대한 준비도 가급적 일찍 준비하는게 비용을 절감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책당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세제의 혜택 여부, 향후 자신에게 예상되는 노인성질환을 적절하게 커버할 수 있는 손실의료보험 등과 같은 민영보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노후 의료비를 분산할 수 있는 준비가 요구된다.

2)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함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는 연금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15% 분리과세 허용

저성장 · 저금리 시대의 은퇴자산 운용방안

연구원 최 성 민
(sungmin.choi@hanafn.com)

"저성장 ·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은퇴자산 운용방향을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금리+α'의 수익률을 추구하고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며 은퇴 후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배당, 이자 등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상품개발과 리스크관리를 도모하고 정부는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등 인프라를 제공하며 개인들도 금융교육 및 라이프스타일 조정을 통해 변화된 금융환경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외의 저성장 ·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환경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저성장 · 저금리 환경에 취약한 영업구조를 가진 국내 금융회사들은 물론 고금리 시대에 익숙한 국내 금융소비자들은 이제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저성장 · 저금리로의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우리에게 또다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령화' 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생활이 예전보다 더욱 중요해졌으나 저성장 · 저금리 시대로 변화하면서 소득은 줄어들고 은퇴 대비로 축적한 자금의 운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동안 고금리에 눈높이를 맞춰왔던 은퇴자산 운용방향을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게 수정하고 이에 따른 금융회사와 개인들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 ·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은퇴자산의 변화

현재 우리나라는 1970~8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지나 경제성장률 1~2%대의 저성장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국내 주식을 이용한 투자상품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브라질, 인도, 아프리카 등 성장성이 높은 신흥국가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은퇴자산의 일정 부분을 배분하여 저성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금리가 지속되면 인플레 위험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금리연동형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한 경우라면 금리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고 이에 따라 은퇴자산이 줄어들 공산도 커 은퇴 후 삶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저금리로 인한 은퇴자산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험자산 비중을 늘려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은퇴자산을 재설계해야 한다.

은퇴 준비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퇴직연금 상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연금의 부채는 임금 상승률에 영향을 받고 사외적립금의 자산증가는 운용수익에 영향을 받는다. 기업 측면에서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영향으로 확정금리 상품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의 사외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낮아졌고 기업실적도 양극화되면서 임금 상승률의 기업 간 편차도 커진 상황이다. 특히 운용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 기업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부담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금리 확정금리 상품이 아닌 다양한 자산군의 배분을 통해 자산운용 수익을 개선하려는 수요가 생겨나고 있으며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려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 측면에서도 저성장으로 인해 자신이 속한 기업의 임금 상승률이 계속 낮을 것으로 판단하는 근로자들은 DC형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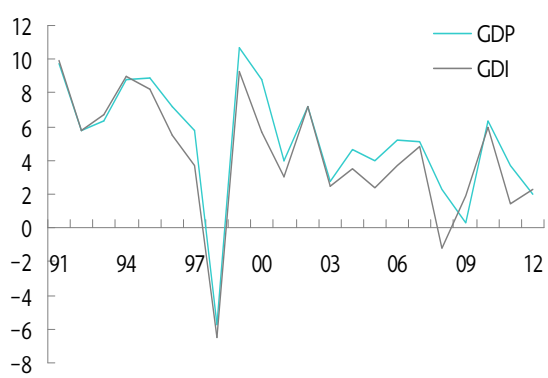
따라서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된다면, 향후 퇴직연금 시장은 DC형 및 실적배당형 상품들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따라 은퇴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크게 3가지 방향의 은퇴자산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은퇴자산 운용방안 ① : ‘시장금리 + α’의 수익률을 추구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금리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의 경우, 저성장・저금리가 장기화되면 선진국의 경우처럼 DB형 상품이 대다수인 환경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가 직접 적극적인 투자운용을 할 수 있는 DC형 상품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DC형 상품에 대한 기업 및 근로자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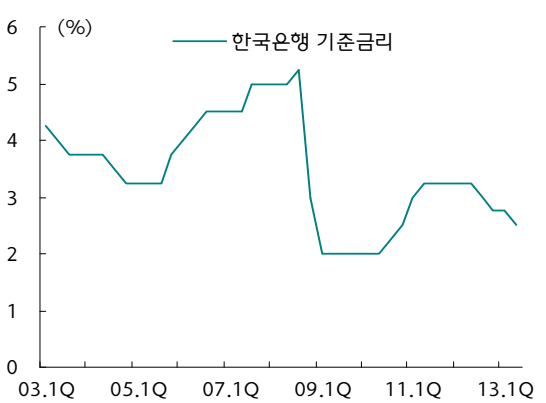
특히 DC형 투자시에는 성장성이 높은 신흥국가 등의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등에 자산을 배분하여 국내 저성장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수익률이 높은 투자형 금융상품 등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림으로써 저성장・저금리에 따른 연금 지급액 감소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또한 투자여력이 있는 고액 자산가의 은퇴상품 설계를 위해서는 저성장・저금리에 따라 투자매력이 떨어진 주식, 채권이나 펀드 등의 전통적인 금융상품보다는 파생금융상품이나 선박, 원자재 등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체투자(AI; Alternative Investment) 상품이나 헤지펀드 방식을 이용한 절대수익추구 상품에 전략적으로 자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투자성향에 따른 상품선택이다. 대체투자의 경우 전통적인 금융상품에 비해 투자위험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보수적인 투자성향의 은퇴자는 투자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변화된 금융환경에서 은퇴 후 내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큰 비중으로 위험자산을 보유해야만 한다. 그러나 높은 수익률에는 그만큼의 위험이 동반된다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잘 짜여진 분산투자가 필요하다. 위험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분산방법을 적절히 선택한 경우 전체 자산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자산 운용방안 ② :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의 활용

또한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저금리 시대에는 새나가는 돈을 막는 전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절세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 선택이 필요하다. 은퇴 전 급여 생활자의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고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지만 은퇴자의 금융소득은 세율이 높고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높은 세부담이 우려된다. 특히 작년 말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포함한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야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6~38%의 누진과세를 했지만 올해부터 기준이 2천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세제혜택이 확대되는 연금저축과 올해 도입되는 절세형 금융상품인 비과세 재형저축, 장기적립식펀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퇴자산 운용방안 ③ : 배당, 이자 등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저성장・저금리 시대에는 보유중인 은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은퇴 후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배당 또는 이자 수익 등 꾸준한 현금 흐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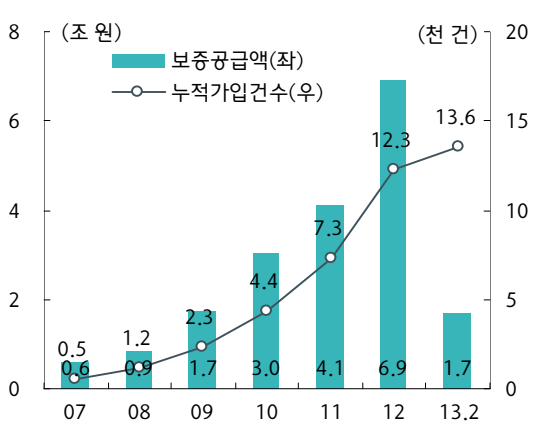
퇴직연금 제도유형별 적립금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DB	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	합계
총 적립금	495,243 (72.1)	131,285 (19.1)	6,616 (1.0)	54,205 (7.8)	687,349 (100.0)
원리금 보장형	487,554 (98.4)	101,028 (77.0)	5,930 (89.6)	47,631 (87.9)	642,144 (93.4)
실적 배당형	5,444 (1.1)	28,355 (21.6)	643 (9.7)	4,088 (7.5)	38,531 (5.6)
기타	2,245 (0.5)	1,902 (1.4)	42 (0.6)	2,485 (4.6)	6,674 (1.0)

자료 : 금융감독원(2013년 3월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 추이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창출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 중 현금성 자산보다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유중인 부동산을 담보로 매달 연금형태로 현금이 지급되는 주택연금이 은퇴 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2012년 말 기준 국내 전체 가구의 가계자산은 실물자산 75.1%, 금융자산 24.9%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60% 수준에 불과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세법 개정안 적용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한 사람으로 이자비용 소득공제(연 200만원) 대상이 확대되어 은퇴 후를 대비하는 고령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일시납 보험상품(즉시연금)이나 월지급식 금융투자상품 등에 가입하여 꾸준한 현금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성장 · 저금리에 대처하는 금융회사, 정부, 개인들의 준비와 노력

앞서 말한대로 저성장 • 저금리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높이고 절세혜택을 받으며 배당, 이자 등 꾸준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3가지 방향으로 은퇴자산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회사 측면에서는 저금리 • 저성장 금융환경에 맞는 은퇴준비 상품개발과 함께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교육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에서는 개인별 투자성향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성된 은퇴설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최근 은퇴설계 서비스가 중요해지면서 금융회사들은 은퇴설계연구소를 설립 또는 확대개편하여 은퇴시장에 대비하고 있으며 시중 은행들에서도 국민은행의 고객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 'KB골든라이프', 하나은행의 '하나 행복디자인', 우리은행의 '100세 파트너' 신한은행의 '신한 스마트 미래설계시스템' 등을 통해 은퇴자를 위한 은퇴설계 및 맞춤형 상품과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저성장 • 저금리 기조에 따라 개인들의 은퇴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은퇴자산에 대한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등의 인프라 제공을 통해 여유로운 은퇴 후 삶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은퇴자산에 대해서는 특별보증이나 예금보험 등의 혜택을 확대하여 은퇴를 준비하는 개인들이 저성장 • 저금리 시대에 수익률을 높이면서도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금리와 연금 적립금 증가에 따라 장기투자 혜택을 보기 위한 상품 수요가 늘고 있는데 장기채권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단기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장기 자본시장 발달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들은 보유한 은퇴자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현실적인 눈높이를 갖출 수 있도록 금융교육 등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며, 저성장에 따른 소득 감소에 맞춰 은퇴 후 라이프스타일을 저소비로 조정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여 부동산 자산을 줄이고 노후대비 적립금을 늘리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 J씨, 개인연금 확대 및 주택연금 활용으로 충분한 노후 준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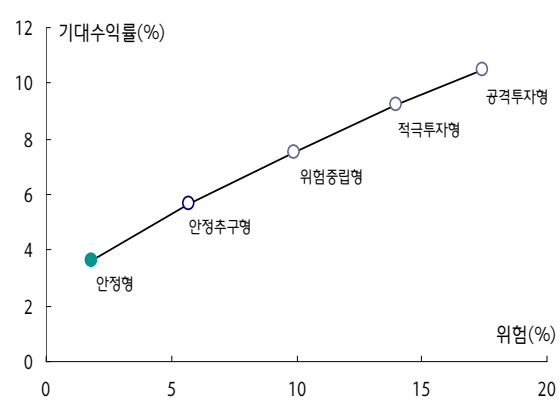
J씨(42세)는 의사로 65세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을 위해 월 300만원이 필요하며 기대수명은 85세로 예상하고 있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으로부터 월 95만원 정도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금보험으로부터 은퇴시 수령하게 되는 개인연금은 약 30만원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의사라는 전문직 특성상 퇴직연금은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은퇴시 수령할 개인연금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여 50만원을 추가 수령할 수 있도록 연금신탁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약 2.7억원의 주택을 활용,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월 74.5만원의 연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J씨는 현재 4천만원의 순금융자산을 보유 중인데 노후자금 3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50.5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에 따른 요구수익률은 약 3.66%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J씨에게는 안정형 포트폴리오 전략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참조)

안정형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채권형으로 운용된다. 그러나 최근의 금리 변동성으로 인해 채권의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미국 양적 완화 우려가 다소 안정되고 있으나 출구 전략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금리 변동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이전처럼 채권 위주의 운용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 증시가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 뱅가드 매물 완료 등 수급 개선으로 점진적 상승이 예상되나 단기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여전히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주식형 투자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결국 현금보유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롱숏 전략을 바탕으로 변동성 장세에서 양호한 성과가 예상되는 대안형 투자로서의 중위험형 전략이나 국내외 증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 관리를 위한 ELS 등의 대안형 투자는 병행함이 바람직하다.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자료 :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투자성향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단위 : %)

자산구분	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국내주식	–	10.0	12.5	32.5	45.0
해외주식	–	–	12..5	24.5(+2.0)	25.5
원자재	–	–	–	–	–
중위험형	15.0	15.0	17.5	9.5	9.5
ELS/ELD	10.0	17.5	17.5	10.0	10.0
국내채권	40.0	22.5	12.5	5.0	2.5
해외채권	–	7.5	12.5	10.0	2.5
현금성	35.0	27.5	15.0	8.5(–2.0)	5.0

자료 :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변동성에 대비한 현금성자산 보유 비중 유지

변동성 장세에서 양호한 중위험형 투자 고려

안정형 포트폴리오는 국내주식 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등 주식형에는 투자하지 않으며 채권형을 중심으로 운용한다.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안정형 포트폴리오의 경우 주식형에 대한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양적 완화 정책 축소 우려가 간헐적으로 제기되면서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변동성 장세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위험형 대안투자를 위해 롱숏전략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와 채권금리 $+\alpha$ 의 수익을 추구하여 변동성 장세에서도 양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주식혼합)A를 선정하였다.

국내채권형 투자는 기업 신용분석 및 저평가 종목 발굴을 통하여 확정금리형 상품 대비 추가수익을 추구하고 회사채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과거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흥국멀티플레이증권4호(채권)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채권형 투자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하였다.

해외채권형에는 투자하지 않았는데 이는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진정되면서 해외채권형 펀드의 성과가 일부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금리 상승 우려에 따른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금리 급등으로 비중을 축소시켰던 채권투자의 비중을 회복시키기에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며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단기 시중 금리를 반영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MMF, MMDA, MMT 등에 대한 비중을 35%로 유지하였다.

한편 의사 J씨는 연금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노후 준비를 위해 추가적으로 은행상품인 연금저축신탁에 가입할 예정이다.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

	자산	유형	상품명	운용사	비중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대안	중위험형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주식혼합)A	트러스톤자산운용	15%
		구조화	ELS(ELF/ELT)	–	10%
	국내채권		흥국멀티플레이증권4호(채권)	흥국자산운용	40%
	현금성		MMF/MMDA/MMT	–	35%
	합계				100%
개인연금	연금보험	약 6년 전부터 월 30만원을 납입 중			
	연금신탁	주거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상품에 가입할 예정			

주 1)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정형 상품 포트폴리오를 의미
2) 유형별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상기 자산배분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바람

자료 : 하나대투증권

첨부 : 의사 J씨의 재무상황 및 노후 재무설계에 대한 주요 가정

1. 대기업 공단 부속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J씨(42세)는 85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약 3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한편 J씨는 의사라는 직업상 65세에 은퇴하여 일반 직장인에 비해 은퇴 연령이 높을 것으로 예상

2. 은퇴 후 J씨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95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보험회사에 가입한 개연연금보험으로 약 3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전문직의 특성상 퇴직연금은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

3. 이에 J씨는 향후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퇴직연금에 갈음할 수 있도록 은행의 개인연금신탁 상품에 가입하여 50만원의 개인연금을 추가수령할 계획. 결국 개인연금으로부터 총 80만원을 수령

4.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제시하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에 가입할 계획이며 65세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가격 3억원에 대해 82.8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J씨가 보유한 2.7억원의 주택으로 월 74.5만원의 주택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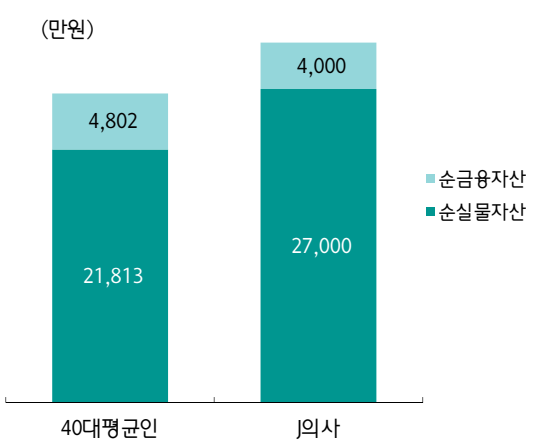
5. 월 부족자금 50.5만원은 매월 필요한 생활자금에서 국민연금과 연금보험, 연금신탁, 주택연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월 부족자금의 65세 시점에서의 가치는 20년간 5년 단위로 4.0%, 3.5% 3.0% 2.5%로 0.5%p씩 차감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

6. 현 시점에서 운용자산 금액은 순금융자산 4천만원이며 이에 대한 요구수익률은 현 시점에서의 순금융자산을 운용하여 65세 시점에서의 월 부족자금의 가치합이 되기 위한 수익률로 계산

7. 만약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신탁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요구수익률은 6.80%로 높아져 순금융자산을 보다 공격적으로 운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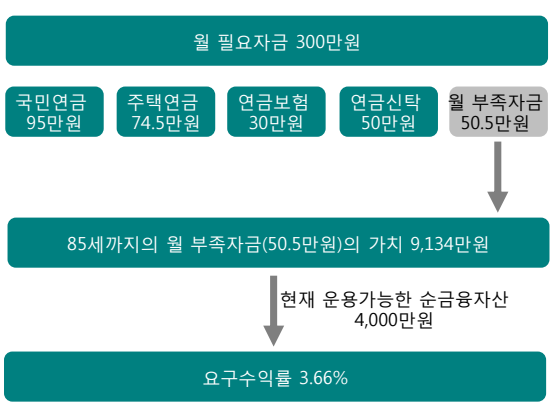
8. J씨는 40대 평균인보다 순금융자산은 적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개인연금 및 주택연금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노후 준비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

40대 평균인과 의사 J씨의 재무상태 비교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의사 J씨의 노후준비를 위한 요구수익률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8월 주식시장은 수급개선에 따른 점진적 상승 예상

7월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완화되면서 안도랠리가 전개되었다. 1,800p회복 이후 추가상승을 이어가며 1,900p를 회복했으나 선진국과의 디커플링 구도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출구전략 이슈와 2분기 어닝 시즌 이후 8월은 상대적으로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으로 주가의 향방은 펀더멘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가 1년 넘도록 횡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부진인데,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며 국내 경기나 기업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펀더멘탈에서 강한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출구전략 우려가 완화된 이후 국내증시의 상대적인 가격매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아울러 뱅가드 이슈와 더불어 상반기 10조원을 순매도했던 외국인 수급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의 점진적인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로 보인다.

채권시장은 금리 안정 이후 횡보 전망

6월 FOMC 회의 이후 금리 급등으로 글로벌 자산가격들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7월 이후 버냉키 등의 연준 인사들의 발언으로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완화되면서 자산가격은 안정화되었다. 다만 자산가격의 되돌림 폭은 적은 양상이었으며 국내에서도 금리 상승에 대한 되돌림 폭은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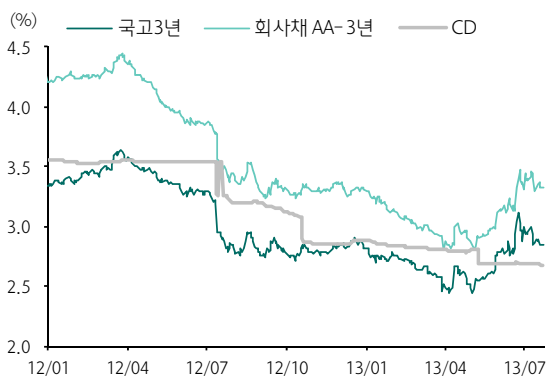
6월 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 발생 이후 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많지 않은 가운데 매수 여력이 있는 보험권 등이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수급상황은 크게 좋지 않다.

이에 따라 금리는 7월 FOMC 이후 방향성 형성 전까지는 박스권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KOSPI와 한국 수출 현황

자료 : Thomson Reuters, 하나대투증권

주요 금리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하나대투증권

해외시장은 이머징 시장 부진에 따른 선진시장과의 차별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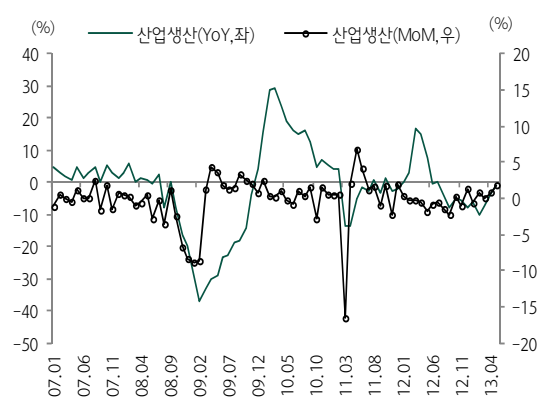
미국시장은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경제 지표는 여전히 그 동안의 흐름과 비슷하여 경제가 호전된 모습과 정체된 모습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6월 중 산업생산 및 고용은 양호하였으나 소비 및 주택판매는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향후 지표개선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유럽은 수출, 소매판매가 부진하였으나 경기선행지수, 제조업 PMI 등 심리지표가 개선되는 등 하반기 점진적인 경기회복이 기대된다. 다만 독일 총선(9/22)이 예정되어 있어 긴축과 성장에 대한 대한 잡음 발생가능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은 생산 및 소비지표가 개선되는 등 실물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기업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치뤄진 참의원 선거에서도 아베노믹스가 지지되는 등 지속적인 펀더멘탈 개선과 정책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은 상승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은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보다는 경제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모멘텀이 부족하며 인도는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등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브라질은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가 50bp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인플레이션 부담에 따른 추가 인상 가능성으로 주가 상승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리츠시장은 금리상승으로 가격 상승이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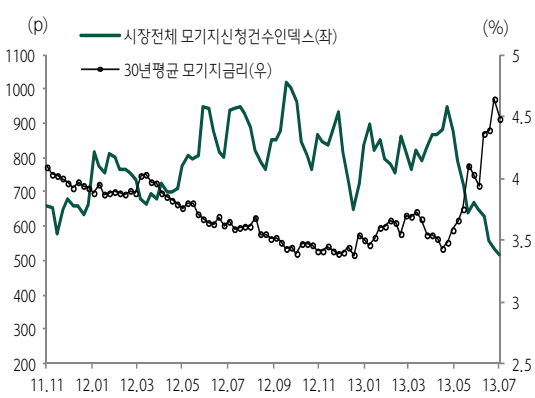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른 리츠 가격 변동성은 다소 안정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리 변동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 부동산 관련지표와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모기지 금리도 상승하여 모기지신청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금리상승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조달비용 증가로 단기적으로 리츠가격 상승 압력을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산업생산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미국 모기지 신청건수와 모기지 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여성 노동 증가에 따른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노후 대비를 위해 공적연금 외의 다른 수단이 필요함을 시사"

Social Security Trustees Report에 따르면 개인 소득자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1970년대 30%에서 1980년대 40%로 증가한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개인 소득자의 소득대체율 분석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이보다는 가계의 소득대체율 분석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여성의 변화하는 삶이 가계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침체기1(1931~1935년 출생), 침체기2(1936~1941년 출생), 전쟁 베이비(1942~1947년 출생), 초기 베이비부머(1948~1953년 출생), 중기 베이비부머(1954~1959년 출생), 후기 베이비부머(1960~1965년 출생) 및 X세대(1966~1975년 출생)의 7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소득대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한 공적연금 급여 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적연금은 은퇴자의 배우자에게도 연금을 제공하고 있다. 즉, 아내의 과거 소득이 없는 경우, 아내는 남편의 기초연금 50%에 해당하는 배우자 연금을 받게 된다. 단, 남편 사망 시에는 남편의 실제 연금의 100% 수준인 생존 연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아내가 과거 소득이 있을 경우, 아내는 배우자 연금 또는 생존 연금과 자신의 과거 소득에 기초한 연금 중 더 큰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의 월 평균소득이 $4,775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아내의 소득이 없는 A 부부의 경우, $1,910에 해당하는 남편의 공적연금과 남편 수급액의 50%에 해당되는 $955의 배우자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득대체율이 60%가 된다. 또한 아내가 $1,194의 월평균 소득(남편 소득의 25%)을 가지고 있는 B 부부의 경우, 아내의 과거 소득에 기초한 연금 수급액이 $813로 남편 연금 수급액의 50%인 $955보다 작으므로 둘 중 금액이 더 큰 배우자 연금 $955를 수령하게 되고, 이 경우 소득대체율은 48.0%가 된다. 아내의 소득이 $2,387(남편 소득의 50%)인 C 부부의 경우, 아내의 과거 소득에 기초한 연금 수급액이 $1,195로 남편 연금 수급액의 50%보다 크므로 자신의 과거 소득에 기초한 $1,195의 연금을 수령하게 돼 소득대체율이 43.4%로 떨어지며, C 부부보다 아내의 소득이 더 높은 D 부부의 경우, 아내는 자신의 과거 소득에 기초한 $1,910의 연금을 수

아내의 소득이 부부의 소득대체율에 미치는 영향 예시

구분	소득			연금			부부의 소득대체율
	남편	아내	아내/남편	남편	아내	배우자 연금	
A	$4,775	$0	0.0%	$1,910	$0	$955	60.0%
B	$4,775	$1,194	25.0%	$1,910	$813	$142	48.0%
C	$4,775	$2,387	50.0%	$1,910	$1,195	$0	43.4%
D	$4,775	$4,775	100.0%	$1,910	$1,910	$0	40.0%

자료 :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령하게 되고 소득대체율은 C부부보다 낮은 40.0%가 된다. 이처럼 남편 소득 대비 아내의 소득 비율이 증가할수록 부부의 소득대체율은 하락한다. .

과거 인구통계 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은 출생 시기별로 변화해 왔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증가했다. 즉, X세대 여성의 73%가 25~34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30년대 초 태어난 여성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둘째, 여성의 임금 수준이 높아졌다. 1930년대 초 태어난 여성의 소득이 남편 소득 대비 30% 수준이었던데 비해 X세대 여성의 소득은 남성 소득 대비 68%까지 증가했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임금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 연금을 받는 여성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자신의 소득에 기초해 연금을 수령하는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임금 수준 증가가 출생 시기 별 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출생 시기 별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이미 은퇴한 4개의 연령대(침체기1, 침체기2, 전쟁 베이비, 초기 베이비부머)에서 모든 가계의 소득대체율은 50%에서 45%로 감소했고, 결혼한 가계의 경우 47%에서 42%로 감소했다. 둘째, 미래 은퇴 연령대(중기 베이비부머, 후기 베이비부머, X세대)에서 모든 가계의 소득대체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소득대체율이 초기 베이비부머 세대 45%에서 X세대 39%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7개 집단 중 젊은 층의 소득대체율은 맞벌이보다 외벌이의 경우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벌이 가계의 특성 변화에 기인한다. 후기 베이비부머 및 X세대 계층의 경우 아내가 남편의 과거 소득에 기초해 연금을 수령하는 가계의 비율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남편이 여성의 과거 소득에 기초해 연금을 수령하는 가계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근무기간 및 소득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후자의 형태가 더 낮은 소득대체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달리 배우자 연금이 없는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소득대체율 간 상관관계가 없으며, 같은 조건 하에서는 오히려 가계 기준 소득대체율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낮은 수준의 소득대체율은 공적연금 재정에 있어서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지만, 가계의 관점에서는 노후대비를 위한 공적연금 수급액 부족을 의미한다. 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은퇴 연령은 여전히 60대 초반인 현 상황에서 공적연금의 역할 감소는 은퇴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공적연금 외의 다른 수단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How does women working affect Social Security replacement rates?”,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2013.7)

출생 시기별 평균 소득대체율

가계 형태	실제치				예측치		
	침체기1 (1931~35)	침체기2 (1936~41)	전쟁 베이비 (1942~47)	초기 베이비부머 (1948~53)	중기 베이비부머 (1954~59)	후기 베이비부머 (1960~65)	X세대 (1966~75)
모든 가계	50%	47%	45%	45%	44%	39%	39%
기혼	47%	45%	42%	42%	41%	37%	37%
외벌이	53%	54%	54%	54%	48%	39%	38%
맞벌이	45%	43%	41%	41%	40%	36%	37%

자료 :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지난 1년간 연금 수령 고령층 46.9% 수준에 불과

"우리나라 고령층 인구 절반 이상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장래 근로를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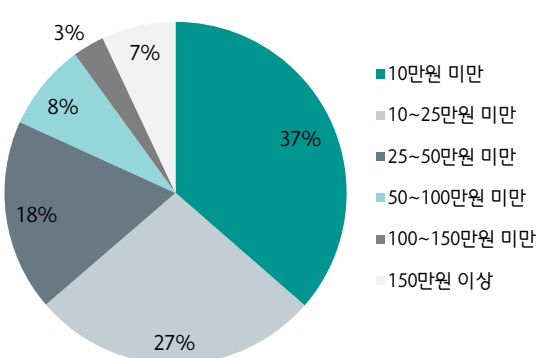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 중 지난 1년 간 연금 수령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3년 5월 기준 전체 고령층 인구 1,092만 명 중 지난 1년 간 연금(공적연금과 사적연금 포함)을 수령한 사람은 약 512만 명으로 46.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남성은 51.9%, 여성은 42.4%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평균 39만원 수준으로 10만원 미만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금 수령자의 81.8%에 해당하는 고령층 인구가 50만원 미만의 매우 낮은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금 수령자 비중 및 월평균 수령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p 및 1만원 증가한 수치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고령층도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 인구 중 55.9%에 해당되는 654만 명의 인구가 장래 근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9%p 증가했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일하는 즐거움 36.9%, 무료해서 4.5%, 사회가 필요로 함 1.9%, 건강 유지 1.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생활비에 보탬'의 경우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비중이 증가(0.4%p)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고령층 인구의 연금 수령 비중 및 월평균 수령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많은 고령층 인구가 생활비 보탬 등의 이유로 장래 근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 인구의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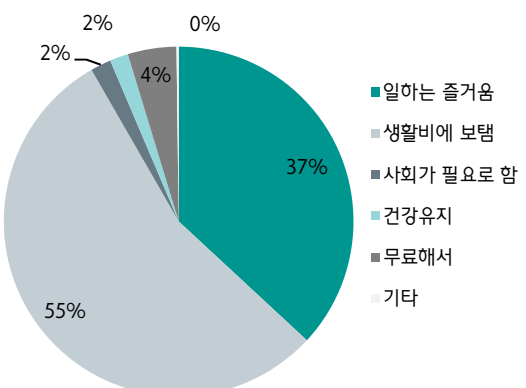
("201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2013.7)

고령층 월평균 연금수령액 구성비



자료 : 통계청

고령층 취업희망 동기



자료 : 통계청

국민연금 보험료 상향 등을 통한 세대간 수급 형평성 고려 필요

"실질 경제성장률이 후세대 부담률보다 낮아 공적연금 체계 하에서 세대 간 부의 재분배 문제 발생"

지난 7월 2013년 제2차 고령사회포럼에서 발표된 "세대간 형평성 관점에서 본 공적연금 개선 방향"에서는 세대간 수급 형평성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공적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탄생된 사회보장제도이다. 근로 시점에서는 기여가 중심이 되고 은퇴시점에 가서야 본격적인 서비스(연금급여지급)가 발생하는 장기 보험으로, 기여와 급부 간 연계가 생애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저부담 · 고급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이러한 성격이 훨씬 강해 초기 세대 가입자에게 상당히 유리하였고, 이에 따라 제도 도입시기와 비교할 때 사회 · 경제적 상황이 많이 변한 현 시점에서 세대간 재분배 기능에 대한 정당성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공적연금 초기 가입자의 높은 급여 수준은 후세대 가입자가 그만큼 더 높은 보험료로 충당해야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간 소득 이전, 즉 세대간 소득 재분배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저성장기에 접어들고 청년 실업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에 존재하는 세대간 부담의 정당성 문제는 한 번쯤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실제 분석 결과 실질 경제성장률이 후세대 부담률보다 낮아 현 세대 및 노인 세대가 이루어 놓은 성장의 몫보다 후세대의 부담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적연금 체계 하에서 세대간 부의 재분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를 고려할 경우 공적연금의 높은 급여 수준이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으며, 단순히 후세대의 부담이 크므로 국민연금 급여를 낮추자는 주장은 좋은 방안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OECD 국가의 공적연금 보험료율 평균은 19.6%(피고용자 8.4%, 고용주 11.2%)로 우리나라의 9%(피고용자 4.5%, 고용주 4.5%)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는 향후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을 통해 세대 간 수급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노후소득 보장의 책임을 공적연금에서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공사연금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나아가 주택 및 농지 역모기지 외 다양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역모기지의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1971년 62살에서 2005년 79살로 늘어났고 2050년에는 86살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할 체력과 의사를 가진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이를 통해 기존 5년의 연금 수급 기간을 보험료 납부 기간으로 바꾸어 후세대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대간 형평성 관점에서 본 공적연금 개선 방향", 2013년 제2차 고령사회포럼, 2013.7)

은퇴자 전용 카드
시니어 계층에 특화된 혜택 제공

연령대별로 특화된 카드 상품의 출시 증가

개인의 소비패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카드 상품은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개인의 특징을 차별적으로 반영하여 설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도 연령대별로 차별적인 소비패턴을 충분히 반영한 상품의 출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 신용카드사의 소비자들의 카드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50~60대의 경우 전체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에 주유, 세금, 병원/약국, 건강/의료, 차량유지, 골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유의 경우 50대 및 60대 이상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4%, 22.9%로 20대(7.0%), 30대(10.1%)대비 월등히 높았으며 병원/약국에 사용하는 비중도 60대 이상의 경우 10.8%로 20대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신용카드 상품은 이렇게 세대별로 다른 소비 패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20 세대를 대상으로는 휴대전화나 대중교통이용 시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가 출시되어 있다.

특히 최근 다양한 고령자 대상 카드 출시

특히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카드업계에서도 이들 시니어 고객을 유치하려는 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50대 이상 시니어 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건강에 관심이 많은 만큼 전국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카드, 건강검진 우대예약, 대형병원 진료 예약 등 다양한 헬스 케어 서비스를 탑재한 카드 등 다양한 카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기능을 포함한 신용카드들도 출시되어 있다.

은퇴자에게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소비는 은퇴자금의 마련만큼이나 중요하다. 따라서 시중에 출시된 다양한 시니어 전용 카드를 비교하여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카드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세대별 카드사용 비중 높은 부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주유	7.0%	10.1%	14.1%	20.4%	22.9%
세금	0.5%	1.2%	1.6%	1.9%	2.3%
병원,약국	5.3%	6.0%	6.5%	7.8%	10.8%
건강, 의료	0.3%	0.4%	0.5%	0.7%	1.0%
차량유지	0.9%	1.3%	1.7%	2.1%	2.0%
골프	0.2%	0.3%	0.8%	0.8%	0.9%
통신요금	8.9%	6.6%	5.2%	4.6%	3.5%
백화점	4.3%	2.5%	2.1%	2.3%	2.4%
대중교통	1.9%	0.9%	0.6%	0.8%	0.7%
전자상거래	5.9%	5.5%	2.8%	1.8%	1.3%
의류	2.6%	1.6%	1.7%	1.7%	1.7%

행복디자인 카드

의료에서 생활업종 혜택으로 카드생활을 행복디자인 하세요!

연회비 : 국내전용 9천원 (기본 6천원 + 제휴 3천원)
국내외겸용 1만원(기본 7천원 + 제휴 3천원)

1. 의료,생활업종 할인 (월 최대 2만원)

할인 업종	전월 사용금액 별 할인율 및 할인한도		비 고
	3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의료	5% (월 최대 5천원까지)	10% (월 최대 1만원까지)	대학병원, 일반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일반/기타의원, 한의원, 건강진단센터, 약국 업종
생활	5% (월 최대 5천원까지)	10% (월 최대 1만원까지)	- 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 통신 : 휴대폰요금 자동이체(SKT, KT, LGU+) - 교통 : 택시 업종

- 마트 할인 서비스는 마트 계산대 결제분에 한해 제공
  *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제외 / 상품권 구매 및 온라인, 임대 매장 제외
  * 업종별 기준은 하나SK업종 기준에 따름

O 서비스 제공조건
- 전월 (1일 ~ 말일) 국내외 일시불/할부 사용금액 에 따라 차등 제공
- 전월 사용금액 산정 시 의료 업종 사용금액 제외
- 단, 최초카드 사용등록 월 익월 말까지는 사용금액 30만원 미만 시에도 5% 할인 제공 (할인업종 별 월 최대 5천원까지)
- 할인금액은 결제일에 차감청구
- 월 할인 횟수 및 할인한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 건 중 매출접수 순으로 산정
- 매출 취소 시, 취소가 접수된 월의 사용금액에서 차감
- 본인카드와 가족카드 사용금액 및 할인한도는 합산되어 서비스 제공
- 교통요금,통신요금은 매출전표 접수 월 기준으로 사용금액에 반영
- 할부 사용 건은 사용 당월 사용금액으로 전액 합산처리
- 보육료 결제기능 추가한 카드의 보육료 정부지원금은 전월 사용금액 산정 시 제외

2. SK주유 서비스

O SK주유소 이용 시 5천원 할인쿠폰 제공
- SK주유소에서 건당 5만원 이상 이용 시 터치스탬프 제공 (1일 1회까지)
- 스탬프 4회 획득 시 5천원 할인쿠폰 발행, 할인쿠폰은 5번째 스탬프 매출에 자동 청구할인
- LPG 제외

3. 건강검진서비스

O 종합검진 전문병원의 건강 검진권 제공
- 기본 : 신체계측, 체성분검사, 안과검사, 청력검사, 심폐기능검사, 소화기검사, 부인과검사, 근/골격계검사 등

  * 상세 검진프로그램 내용 및 검진기관은 대상자에 한해 별도 안내
  * 본인에 한해 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건강검진기관에 고객신상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 제휴사 사정에 따라 검진기관 및 검진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음

O 서비스 제공조건
- 12개월간 국내외 일시불/할부 누적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해당기간(매월 1일~말일) 동안 국내외 일시불/할부 1만원 이상 사용한 월이 10개월 이상 시 제공
- 건강 검진권 발송 시 발송월부터 서비스 제공 조건은 새로 시작
- 본인카드와 가족카드 사용금액은 합산되어 본인에게 서비스 제공
- 보육료 결제기능 추가한 카드의 보육료 정부지원금은 전월 사용금액 산정 시 제외

4. OK캐쉬백 서비스

O 전국 OK캐쉬백 가맹점에서 OK캐쉬백포인트 적립 및 사용가능
- OK캐쉬백 대표 가맹점

업종	가맹점	적립률
쇼핑	홈플러스, 롯데홈쇼핑, 신라면세점, 워커힐 면세점	1~0.1%
주유/자동차	엔크린, 스피드메이트	0.5~0.3%
제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2.5~1%
커피/외식	할리스커피, TGIF, 미스터피자, 버거킹, KTF, 베니건스, 씨즐러	2~1%

5. Smarⓣ 여행서비스

O 해외여행 서비스
- 국제선 항공권 최대 7% 혜택
- 해외 패키지 최대 3% 혜택
- 해외호텔 예약 시 최대 7% 혜택
- 지정 해외호텔 3박 이상 이용 시 1박 무료/ 늦은 체크아웃 등

O 국내여행 서비스
- 국내선 항공권(대한항공,아시아나, 진에어) 최대 10% 할인 혜택
- 제주 특급호텔 2박(연박) 시 1박 무료(성수기,연휴 제외)
- 제주도 렌터카 48시간 이용 시 24시간 무료 및 시간초과 시 추가우대
- 제주 GOLF 상품 최대 3% 혜택
- 제주 잠수함 탑승 시 최대 30% 혜택
- 국내 숙박(호텔, 콘도, 리조트) 최대 10% 혜택
- 국내 펜션 최대 50% 혜택
- 20개 지정 콘도 및 리조트 2박(연박) 시 1박 무료
- 온천/워터파크 예약 시 동반아동 2명까지 최대 30% 할인

O 부가서비스
- 인천공항 HUB 라운지 무료혜택($35 상당)
- 면세점 할인 쿠폰 제공
- 하나은행 환전수수료 우대권 제공
- 국제전화카드/ 여행상품 소식지 무료 제공

* Smarⓣ 여행서비스는 1599-5151 전화 예약 시 제공
* 서비스 제공은 회원(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횟수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참고 [하나SK카드 〉 생활편의서비스 〉 여행 〉 Smarⓣ 여행서비스 참고]

*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14조 3항에 의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출시 후 1년 이내에는 변경되지 않으며, 축소 변경 시에는 6개월 이전에 고지해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시니어의 든든한 동반자

해피니어 신용카드

Happinior 해피니어

해피니어 적립서비스

■ 포인트 적립률 및 적립한도

전월 카드사용실적		20~60만원	60~100만원	100만원 이상
특별포인트 적립가맹점	적립률	3%	5%	10%
	주유 적립률/리터당	40점/ℓ	60점/ℓ	80점/ℓ
	월간 통합적립한도	10,000점	30,000점	50,000점
기본포인트 적립가맹점	적립률	0.3%	0.5%	1%

※ 전월 카드사용실적이 20만원 미만 시에는 0.1% 적립률이 적용됩니다.
※ 주유 1ℓ 당 단가는 매월 SK 고시 휘발유가 기준 (등유 및 경유는 휘발유가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립)
※ 기본포인트는 특별포인트 적립대상 업종 외 모든 가맹점에서 적용되며 한도 제한 없이 적립됩니다.

■ 특별포인트 적립업종 및 적립한도

전월 카드사용실적	특별포인트 적립 대상 가맹점	월간 적립한도
병원/약국	전국 모든 병원 / 약국	15,000점
주유소	전국 모든 주유소 (LPG 제외)	10,000점
3대 대형할인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5,000점
이동통신요금	SKT, KT, LGU+ 통신요금자동이체	5,000점
택시 / 철도 / 시외버스	전국 모든 택시, 철도(Korail), 시외버스	5,000점
헬스 / 골프장	헬스장 및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등 골프업종	10,000점

※ 특별포인트는 전월 카드사용실적에 따른 월간 통합적립한도를 초과하여 적립될 수 없습니다.
※ 특별포인트 적립가맹점은 당행에 해당가맹점 업종 또는 업체로 등록된 곳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특별포인트 월간 적립한도가 초과된 사용건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YES 포인트 적립서비스 제공조건

- 전월 카드사용실적은 신용판매(일시불, 할부)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병원/약국 업종, 주유소 업종, 3대 대형할인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용 매출을 제외한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해당카드 사용금액 입니다.
- 신규 카드발급 회원에게는 최초 카드사용 등록 월 포함 익월 말까지 전월 카드사용실적이 20만원 미만이어도 20~60만원 실적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무이자할부 및 할인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가 이미 제공된 거래 건은 포인트 적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무이자할부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1% 이상의 포인트 적립률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포인트는 제공됩니다.

해피니어 할인서비스

■ 해피니어 헬스케어서비스

- 건강검진 우대예약
- 대형병원 진료예약
- 의료진 건강상담서비스
- 뷰티/덴탈 클리닉 우대예약서비스
- 자가 건강체크 프로그램

※ 해피니어 헬스케어서비스 이용방법 : 해피니어 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 (www.kebhealthcare.co.kr)

■ 보험료 YES 포인트 자동차감 결제할인

- 월 최대 25,000원까지 보유 중인 YES 포인트 자동차감을 통한 보험료 미리결제서비스
- 대상 보험료 : 해피니어 카드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라이나 생명보험㈜의 모든 보험
- 서비스대상 고객 : 청구 월 기준 동 서비스 신청이 등록되어 있는 해피니어 카드 회원 (1,000포인트 이상 보유 시)

■ 해외여행 상해보험 무료가입

■ 해피니어 여행 할인

- 항공권 및 여행패키지 할인

※ 서비스 이용은 YES 투어 홈페이지(www.keb.co.kr/yestour) 또는 1588-5208(모두투어), 1544-0845(하나투어), 1577-5938(세계KRT)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해피니어 골프서비스

- 전국 120여 개 골프장 인터넷 무료예약서비스 제공
- 국내 골프여행 패키지 할인서비스 (1팀(4인) 기준 회원본인 20% 할인)

※ 골프서비스 제공기간 : 2011년 2월 1일 ~ 2012년 1월 30일

■ 해피니어 플래티늄서비스

- VISA 플래티늄서비스
- MasterCard 플래티늄서비스

■ 해피니어 무이자할부서비스

연회비

■ 연회비

- 본인회원 : 20,000원 / 가족회원 : 면제

※상기 서비스는 요약한 내용이며, 당행 및 제휴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환카드 홈페이지(www.yescard.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금융라이프의 영원한 파트너

KEB 외환카드

무더위 여름철 건강관리 요령

무더위에 어르신들이 더욱 위험

최근 각종 매체들의 기사는 지금의 여름철 날씨가 단순히 '덥다' 라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 극단적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올 여름의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앞으로 다가올 무더위에 대비해 폭염대응 안전수칙에 대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한다" 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땀샘 감소로 땀 배출량이 적어져서 체온조절이나 탈수감지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혈압, 심장병, 당뇨, 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경우 무더위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폭염대비 9대 건강 수칙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폭염대비 9대 건강 수칙을 중심으로 어떻게 여름철 건강을 관리할 것인지 살펴보면;

①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합니다.

뜨거운 음식은 몸의 체온을 높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고,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이므로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단, 수분 섭취 제한대상 질환자의 경우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섭취하여야 한다.

②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하세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탈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럴 땐 그냥 물보다는 스포츠 음료나 소금이 약간 가미된 물을 마심으로써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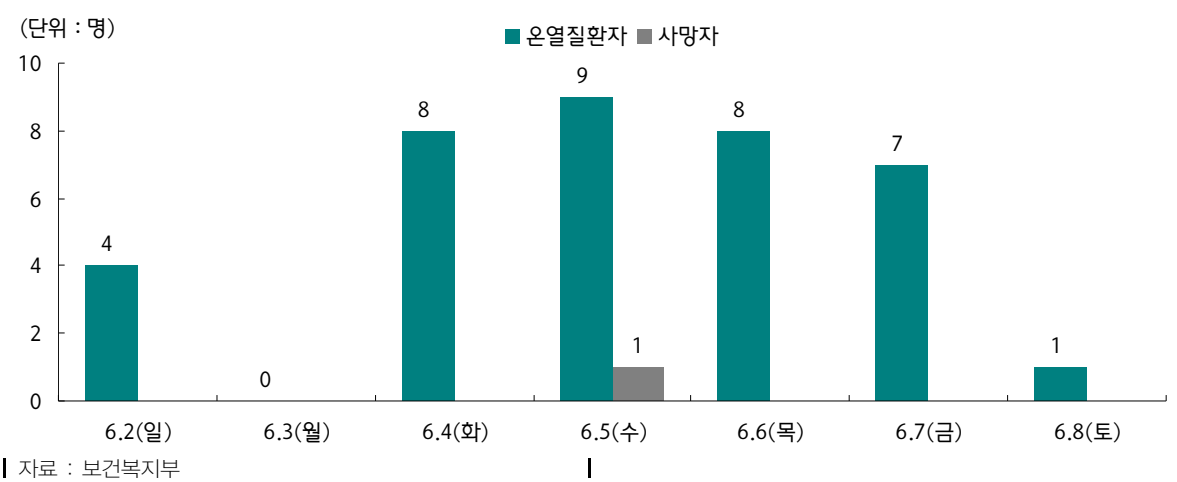
③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으세요.

되도록 가볍고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요새는 땀 배출이 좋고 쿨링효과가 있는 소재의 옷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옷 구매 시 이 점을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④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삼가며 햇볕을 차단합니다.

특히, 한낮(오후 12~5시 사이)에는 외출이나 논일, 밭일등의 작업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그래도 낮에 야외

온열질환자 응급진료 사례 현황(2013.6.2 ~ 6.8)>



자료 : 보건복지부

활동을 해야 한다면 자주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창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줌으로써 최대한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⑤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며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실내온도를 적정수준(26~28도)으로 유지합니다.

우리몸은 잔잔히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갑작스런 온도변화는 기관지 질환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⑥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한다.

스스로 몸의 이상증상(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등)을 느낄 경우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⑦주변 사람의 건강을 살핍니다.

여름철은 폭염에 취약한 노인,영유아, 고도 비만자, 만성질환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⑧주, 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창문을 일부 열어두더라도 차안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동물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⑨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전화 후 아래의 응급처치를 취합니다.

폭염으로 실신한 환자가 있다면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옮긴 후 환자의 체온을 낮춰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찬물을 주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 삼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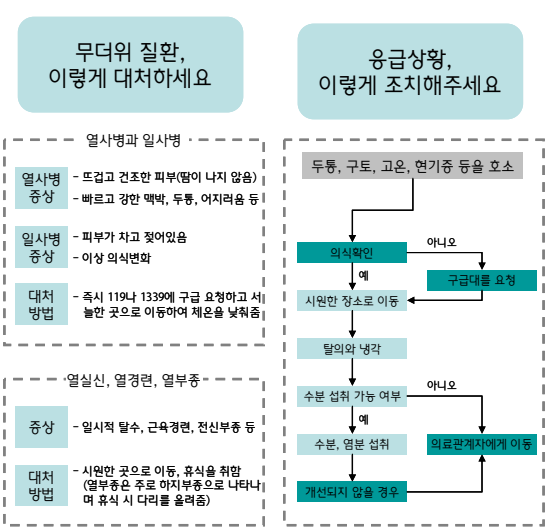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갑작스런 발병으로 응급실에 도착하였지만, 의료비결제 문제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이럴 땐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를 이용해보자.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해서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만약 병원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을 거부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또는 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단,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은 정해져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자.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행복디자인)

무더위 질환 및 응급상황 대처 요령



자료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비 적용가능 응급증상

부위	증상
신경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심혈관계통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중독 및 대사장애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외과	개복수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안과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소아청소년과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자료 : 보건복지부

하나은행,
안심이체 서비스 무료 시행

하나은행은 지난 7월 26일부터 고객이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이용한 안심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SMS 인증 수수료를 무료로 시행한다. 그동안 안심이체 거래 시 인증번호 발송 건당 3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으나, 금번 무료 시행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이 전자금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대투증권,
EUREX 야간옵션 이벤트 실시

하나대투증권은 야간옵션 투자자를 위한 『EUREX 야간옵션 이벤트』를 7월 22일 부터 9월 13일까지 시행한다. 동 이벤트는 야간옵션 신규계좌 개설 고객에게 선착순 사은품 지급과 신규거래고객 및 휴면고객 중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30만원 상당의 현금 지급, 선물옵션 세미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외환은행,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고객 대상『외국인신용대출』출시

외환은행은 기존 거래중인 국내거주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무담보/무보증 대출 상품인 『외국인신용대출』을 출시했다. 동 상품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국내거주 외국인 고객의 금융서비스 혜택 확대를 위해 준비되었으며, 외환은행은 향후 다양한 외국인 전용 상품·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하나생명,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집중보장
무배당 꼭 하나 건강보험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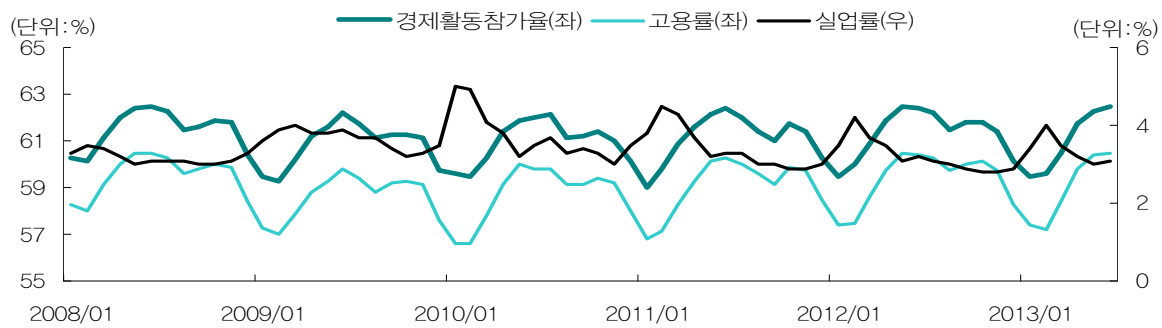
하나생명은 한국인의 2대 질병인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을 집중 보장하는 『무배당 꼭 하나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동 상품은 최저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해당 질병 진단 시 최고 5천만원을 지급하며 다양한 특약을 통해 수술, 재해 및 입원 등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보장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 활동

통계청

1. 경제활동 및 고용

연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2008	61.5	6.5	63.6	75.2	80.1	72.0	37.7	59.5	5.9	59.1	72.9	78.4	70.6	37.2
2009	60.8	6.2	63.1	74.0	79.6	72.1	37.3	58.6	5.4	58.2	71.3	77.7	70.3	36.7
2010	61.0	6.9	63.2	74.6	79.8	72.7	37.0	58.7	6.1	58.2	72.0	77.8	70.9	36.0
2011	61.1	7.6	63.2	74.7	80.1	73.1	37.4	59.1	6.8	58.5	72.2	78.4	71.6	36.5
2012	61.3	7.7	62.8	75.0	80.0	73.8	38.4	59.4	7.0	58.1	72.7	78.3	72.2	37.5
2013.1~6	61.0	7.5	61.5	75.1	79.7	73.9	38.1	59.0	6.8	56.6	72.3	77.9	72.4	37.2
2013.5	62.3	6.8	62.3	75.6	80.4	75.4	41.6	60.4	6.1	57.8	73.3	78.7	74.0	40.9
2013.6	62.5	6.9	62.4	75.6	80.7	75.7	41.7	60.5	6.2	57.6	73.4	79.0	74.4	40.9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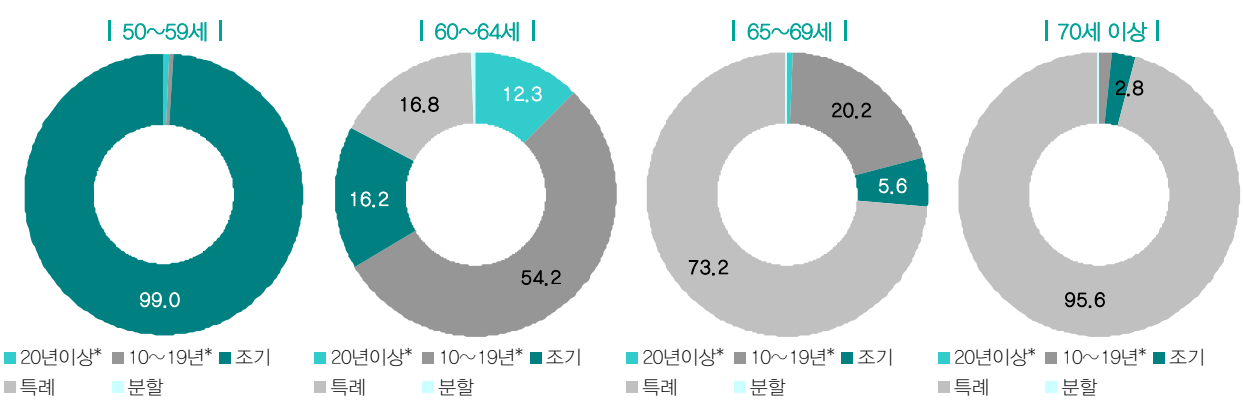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

1. 가입자 현황

(개소, 명)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2008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2009	18,623,845	979,861	9,866,681	8,689,861	1,925,023	6,754,838	36,368	40,935
2010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2011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20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2013.4	20,350,576	1,237,842	11,658,510	8,400,258	1,927,548	6,472,710	194,145	97,663
2013.5	20,419,405	1,247,734	11,715,897	8,411,679	1,932,515	6,479,164	191,566	100,263

2. 2013년 5월 연령별 노령 연금 급여수급자 현황



주 : *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의미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1. 신규 가입 및 보증공급 현황

(건, 억원)

연도	신규가입	보증공급액
2009.12	1,124	17,474
2010.12	2,016	30,361
2011.12	2,936	41,000
2012.12	5,013	69,006
2013.1~6	2,567	31,216
2013.5	305	3,082
2013.6	321	3,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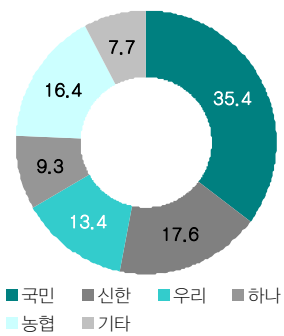
2. 2013년 6월 금융기관별 주택연금 현황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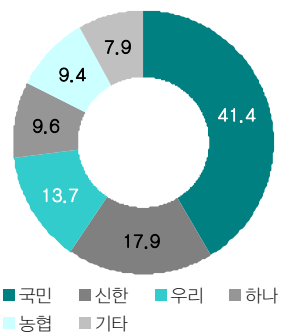
은행	보증공급액	잔액
국민은행	1,273	79,817
신한은행	643	34,426
우리은행	481	26,483
하나은행	333	18,438
농협	590	18,145
기타	278	15,303
합계	3,598	192,613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추이

보증공급액 기준



잔액 기준



퇴직연금 *

노동부, 금융감독원

1. 2013년 3월 기준 가입 근로자수 및 사업자 현황, 계약수(말기준)

(명, 건)

구분	근로자				사업자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총계약수	DB형	DC형	기업형IRP
은행	7,327,399	5,053,062	1,222,478	85,704	1,180,011	77,962	90,077	43,758
생명보험	2,974,345	2,696,354	169,261	3,604	208,511	70,411	15,390	1,781
손해보험	1,011,189	952,680	55,033	252	21,822	1,933	16,338	223
증권	2,593,903	2,347,706	136,080	278	119,134	2,931	6,228	148
근로공단	68,384	–	66,681	477	20,342	–	20,116	226

2.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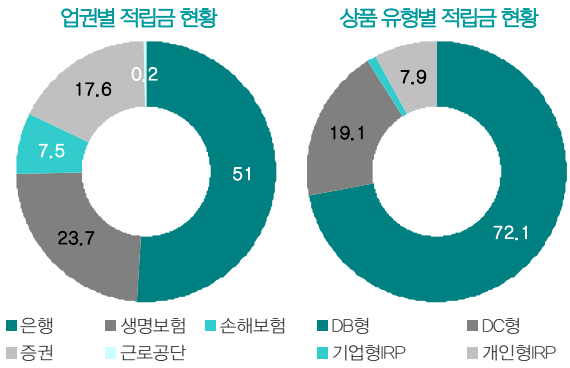
(개소, %)

구분	합계	DB형 단독 도입		DB, DC 동시도입		DC형 단독도입		기업형IRP 도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0	94,455	34,414	36.4	1,590	1.7	34,904	37.0	23,547	24.9
2011	139,151	53,351	38.3	2,876	2.1	56,476	40.6	26,448	19.0
2012.10	189,644	64,139	33.8	4,142	2.2	92,215	48.6	29,148	15.4
2012.11	194,209	65,531	33.7	4,129	2.1	95,317	49.1	29,232	15.1
2012.12	203,488	68,031	33.4	4,615	2.3	101,086	49.7	29,756	14.6
2013.1	207,319	69,012	33.3	4,641	2.2	103,716	50.0	29,950	14.4
2013.3	215,962	70,868	32.8	4,924	2.3	109,820	50.8	30,350	14.1

* : 금융당국의 자료공개 주기 변경으로 향후 분기별로 작성될 예정

3. 2013년 3월 업권별 적립금 현황 및 추이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계	687,349	495,243	131,285	6,616	54,205
은행	350,236	220,867	85,401	6,416	37,552
생명보험	163,089	137,791	18,168	160	6,970
손해보험	51,870	45,802	4,236	10	1,822
증권	120,932	90,782	22,278	18	7,854
근로공단	1,223	0	1,203	13	7



4. 2013년 3월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

(억원, %)

구분			DB형		DB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	예적금		249,611	50.4	78,392	59.7	5,767	87.2	34,549	63.7	368,319	53.6
	금리확정형보험		170,512	34.4	13,195	10.1	111	1.7	6,980	12.9	190,798	27.8
	금리연동형보험		24,067	4.9	4,616	3.5	52	0.8	1,181	2.2	29,916	4.4
	국채		529	0.1	1,109	0.8	0	0.0	1,641	3.0	3,278	0.5
	통안증권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정부보증채		0	0.0	0	0.0	0	0.0	0	0.0	0	0.0
	원리금보장ELS		35,090	7.1	1,944	1.5	0	0.0	2,391	4.4	39,425	5.7
	RP		7,733	1.6	1,575	1.2	1	0.0	827	1.5	10,136	1.5
	발행 및 표지어음		0	0.0	131	0.1	0	0.0	35	0.1	166	0.0
	기타		12	0.0	66	0.1	0	0.0	27	0.0	105	0.0
원리보장금 소계			487,554	98.4	101,028	77.0	5,930	89.6	47,631	87.9	642,144	93.4
실적배당	실적배당형 보험		166	0.0	1,556	1.2	9	0.1	350	0.6	2,082	0.3
	집합투자증권	주식형	833	0.2	8	0.0	0	0.0	8	0.0	849	0.1
		혼합형	1,116	0.2	13,321	10.1	187	2.8	1,398	2.6	16,023	2.3
		채권형	2,762	0.6	12,660	9.6	414	6.3	2,004	3.7	17,840	2.6
		재간접	1	0.0	173	0.1	0	0.0	25	0.0	199	0.0
		부동산/실물/특별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344	0.1	537	0.4	33	0.5	40	0.1	955	0.1
		집합투자증권 소계	5,211	1.1	28,255	21.5	643	9.7	3,827	7.1	37,946	5.5
	직접투자		223	0.0	100	0.1	0	0.0	261	0.5	585	0.1
실적배당 소계			5,444	1.1	28,355	21.6	643	9.7	4,088	7.5	38,531	5.6
대기성 자금			2,245	0.5	1,902	1.4	42	0.6	2,485	4.6	6,674	1.0
총계			495,243	100.0	131,285	100.0	6,616	100.0	54,205	100.0	687,349	100.0

5. 2013년 3월 금융업권별 적립금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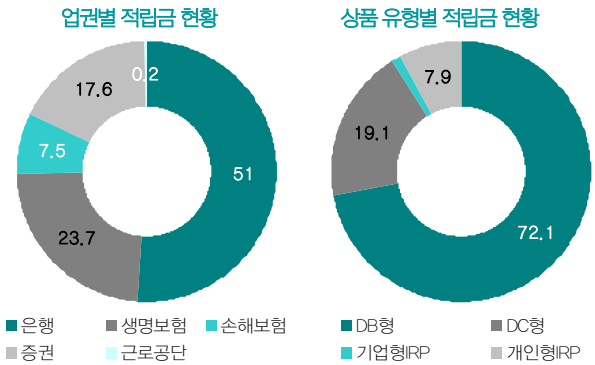
(억원, %)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원리금보장형	330,498	94.4	156,176	95.8	50,866	98.1	103,397	85.5	1,206	98.6
실적배당형	16,266	4.6	6,175	3.8	801	1.5	15,283	12.6	7	0.6
기타	3,472	1.0	738	0.5	203	0.4	2,252	1.9	9	0.8
합계	350,236	100.0	163,089	100.0	51,870	100.0	120,932	100.0	1,223	100.0

주 : 기타는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 등)

3. 2013년 3월 업권별 적립금 현황 및 추이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계	687,349	495,243	131,285	6,616	54,205
은행	350,236	220,867	85,401	6,416	37,552
생명보험	163,089	137,791	18,168	160	6,970
손해보험	51,870	45,802	4,236	10	1,822
증권	120,932	90,782	22,278	18	7,854
근로공단	1,223	0	1,203	13	7



4. 2013년 3월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

(억원, %)

구분			DB형		DB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	예적금		249,611	50.4	78,392	59.7	5,767	87.2	34,549	63.7	368,319	53.6
	금리확정형보험		170,512	34.4	13,195	10.1	111	1.7	6,980	12.9	190,798	27.8
	금리연동형보험		24,067	4.9	4,616	3.5	52	0.8	1,181	2.2	29,916	4.4
	국채		529	0.1	1,109	0.8	0	0.0	1,641	3.0	3,278	0.5
	통안증권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정부보증채		0	0.0	0	0.0	0	0.0	0	0.0	0	0.0
	원리금보장ELS		35,090	7.1	1,944	1.5	0	0.0	2,391	4.4	39,425	5.7
	RP		7,733	1.6	1,575	1.2	1	0.0	827	1.5	10,136	1.5
	발행 및 표지어음		0	0.0	131	0.1	0	0.0	35	0.1	166	0.0
	기타		12	0.0	66	0.1	0	0.0	27	0.0	105	0.0
원리보장금 소계			487,554	98.4	101,028	77.0	5,930	89.6	47,631	87.9	642,144	93.4
실적배당	실적배당형 보험		166	0.0	1,556	1.2	9	0.1	350	0.6	2,082	0.3
	집합투자증권	주식형	833	0.2	8	0.0	0	0.0	8	0.0	849	0.1
		혼합형	1,116	0.2	13,321	10.1	187	2.8	1,398	2.6	16,023	2.3
		채권형	2,762	0.6	12,660	9.6	414	6.3	2,004	3.7	17,840	2.6
		재간접	1	0.0	173	0.1	0	0.0	25	0.0	199	0.0
		부동산/실물/특별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344	0.1	537	0.4	33	0.5	40	0.1	955	0.1
		집합투자증권 소계	5,211	1.1	28,255	21.5	643	9.7	3,827	7.1	37,946	5.5
	직접투자		223	0.0	100	0.1	0	0.0	261	0.5	585	0.1
실적배당 소계			5,444	1.1	28,355	21.6	643	9.7	4,088	7.5	38,531	5.6
대기성 자금			2,245	0.5	1,902	1.4	42	0.6	2,485	4.6	6,674	1.0
총계			495,243	100.0	131,285	100.0	6,616	100.0	54,205	100.0	687,3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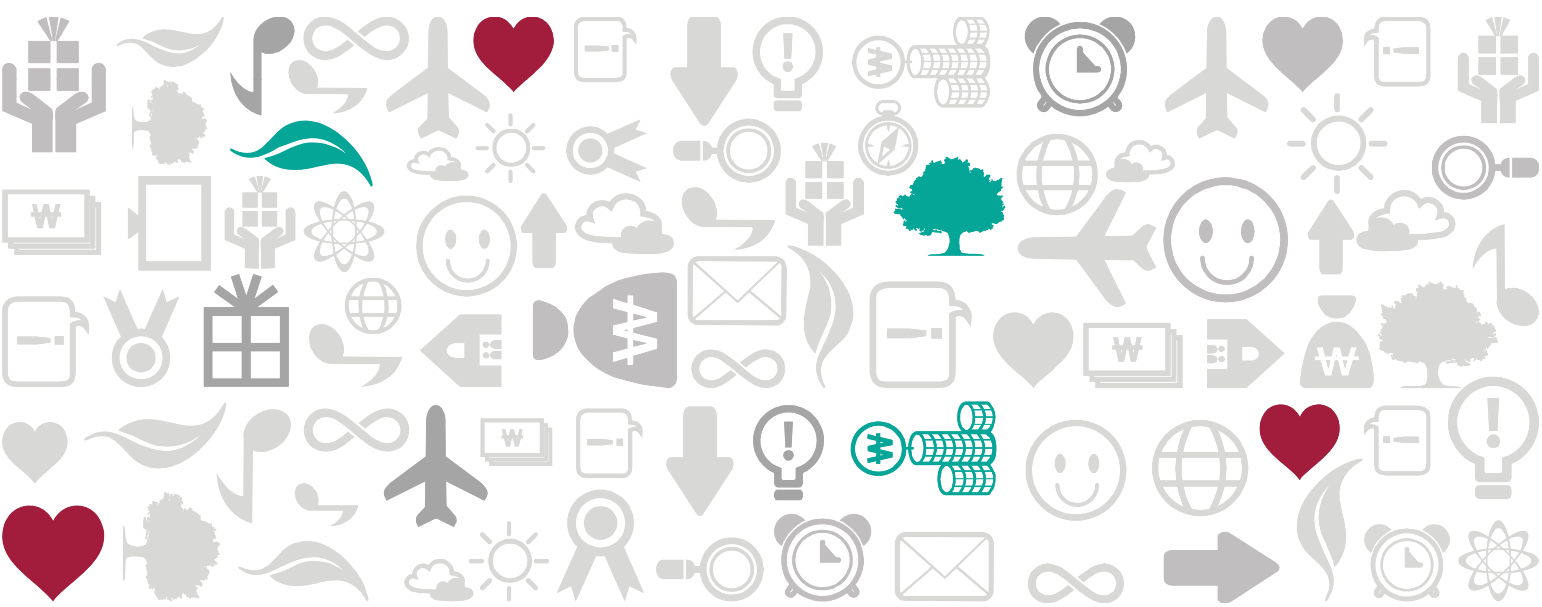
5. 2013년 3월 금융업권별 적립금액 현황

(억원, %)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원리금보장형	330,498	94.4	156,176	95.8	50,866	98.1	103,397	85.5	1,206	98.6
실적배당형	16,266	4.6	6,175	3.8	801	1.5	15,283	12.6	7	0.6
기타	3,472	1.0	738	0.5	203	0.4	2,252	1.9	9	0.8
합계	350,236	100.0	163,089	100.0	51,870	100.0	120,932	100.0	1,223	100.0

주 : 기타는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 등)

www.hanaif.re.kr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행복가이드 2013.08[No.05]
150-70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 Tel 2002-2200 | Fax 2002-2610